

시험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교재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8-9페이지에 나와있는 '인도자들을 위한 지침'을 꼭 숙지해주세요.

- 인도자를 위한 이 과의 목적 :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고 왜 그렇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깨닫고, 신앙 생활을 하며 만나는 다양한 시험들을 온전히 극복하도록 도전한다.



말씀 깨닫기 위한 준비

오늘의 말씀 : 야고보서 1:1~4

묵상의 말씀 :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앎이라.” (2-3절)

찬송 : 288장 (통 204,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기도 : 인도자 혹은 자원자

지난 주 말씀 적용한 것 나누기

마음 열기 : 당신이 경험한 어려움들 중 가장 최근의 것에 대해 간단히 나누어 봅시다.

말씀 듣기 1 : 본문을 다 함께 천천히 읽어 봅시다.

배경설명 및 도움말 :

인도자가 읽거나 혹은 미리 숙지해 온 것을 설명해 줌으로서 참가자들이 두 번째 말씀을 듣는 동안에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얻도록 해줍니다.

Kingdom
Life



배경설명 :

신약 성경에는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이 여러 명 등장하는데, 야보고서의 저자는 교회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로 간주되어 왔다. 야고보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고전 15:6) 오순절 성령강림을 체험한 후에는 (행 1:14) 초대 교회의 저명한 리더가 되었다. 이렇게 초대 교회의 리더로서 권위를 가지고 있던 야고보는 스테반의 순교 이후 예루살렘 초대 교회에 붙어닥친 대박해로 인해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위로하고, 동시에 실천적 신앙을 통해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가라고 촉구하기 위해 이 서신을 썼다. 뿔뿔히 흩어진 초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던 야고보는 본문에서 그러한 시험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시험이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를 설명해 준다.

도움말 :

- 종 (1절, 헬: 둘로스): 실질적으로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의 사회적 신분은 '종' (노예) 이었고, 노예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은 전적인 순종과 변하지 않는 충성이었다.
- 시험 (2절, 헬: 페이라스모스): 시험은 크게 2 가지가 있다. 하나는 외부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 오는 시험 (test)이며, 또 다른 하나는 우리의 내적인 욕심에 의해 파생되는 유혹 (temptation)으로서의 시험이다. 영어 성경은 본 절의 시험을 믿음의 연단을 위한 시험 (test)으로 번역하였고, 13절의 시험은 'temptation'으로 번역하였다.
- 형제들아 (2절, 헬: 아델포이): 구약에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동족을 '형제들'이라 불렀다 (출 2:11, 신 15:2). 신약에서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 까지도 '형제들'이라 칭했다 (행 15:23).
- 시련 (2절, 헬: 도키미온): 은이나 금을 순수한 것으로 제련하기 위해 뜨거운 불 속에 넣는 연단을 의미한다.
- 인내 (3절, 헬: 휘포모네): 여러가지 시련 속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고 참아내는 능력을 의미한다.

말씀 듣기 2 :

한 사람이 다시 본문을 천천히 읽고, 나머지는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하고 있는 야고보의 마음을 상상하면서 경청합니다.



말씀 깨닫기

1. 【관찰 질문】 이 서신의 저자인 야고보는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1절)
야고보는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하고 있다.

[해석 질문] 예수님의 동생이었고, 초대 교회에서 권위있는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이렇게 자신을 소개한 것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도움말 참조)

먼저, ‘종’으로 해석된 ‘돌로스’의 의미가 그 당시에 성행했던 ‘노예’임을 염두에 두자.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그리고 초대 교회의 명성있는 지도자로서 자신을 소개할 때 자신을 높이는 여러 수식어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다른 모든 것들은 생략하고 오직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했다. 이러한 자기 소개는 야고보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준다. 나아가서 야고보가 이 편지의 수신자들에게 이렇게 자기를 소개한 것은 자신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선명히 보여준다. 초대 교회의 권위있는 지도자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철저히 순종하며 충성하고 살고 있음을 밝히면서, 수신자들에게도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를 도전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로, 이 편지의 수신자인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는 초대 교회 당시 스테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큰 박해가 일어남으로 인해 예루살렘과 유대 밖으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한다.

[거울 질문] 자신을 가장 잘 소개해 주는 표현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평소에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살고 있는지, 즉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자신을 예수님과의 관계에 비추어 소개하거나, 혹은 세상적 지위나 타이틀로 소개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자연스럽게 나누어 보고, 초대 교회 권위있는 지도자였던 야고보의 자기 소개가 각자에게 어떤 도전과 은혜를 주는지도 나누어 보면 좋을 것이다.

2. [관찰 질문] 저자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어떻게 반응하라고 도전합니까? (2절)

저자 야고보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도전한다.

[해석 질문] 저자의 이러한 도전은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에 어떤 의미가 있음을 시사해줍니까? (3절, 도움말 참조)

시험을 당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한 것으로 보아 시험을 당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고, 그 유익은 3절의 말씀을 볼 때 믿음의 시련(연단)임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시험’을 의미하는 헬라어는 ‘페이라스모스’인데,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 외부로부터 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한 우리 내면의 욕심을 이용하여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유혹하는 것도 포함한다. 본 절에 나오는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순수한 것으로 단련하기 위해 외부로부터 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하신 것도 이러한 시험의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창 22:1-2, 12 참조).

[거울 질문] 시험을 당할 때 당신은 주로 어떻게 반응합니까?

시험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하느냐에 따라, 즉 우리 마음의 자세 혹은 믿음의 정도에 따라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에게 다가오는 시험 (어려운 일들)이 믿음을 단련하기 위한 것임을 확실히 믿는다면, 야보고가 도전하는 것과 같이 시험당할 때에 기뻐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어떤 자세로 시험에 대처해 왔는지 나누어 보고, 앞으로 다가오는 시험들에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대처하기로 결단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3. [관찰 질문] 저자 야고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도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과정에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기 때문이다. 즉, 신앙이 성숙해지기 때문이다.

[해석 질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매우 유사하다. 조개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그 안에서 진주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조개 안으로 돌이나 이물질이나 불순물이 들어오게 되면 진주는 고통 속에서 그것들을 녹이기 위해 계속적으로 자기의 진액을 분비하면서 자기의 부드러운 살로 으깨려 하며, 그러한 과정 속에서 아름답고 영롱한 진주라는 열매가 형성된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에게 시험이 올 때 힘들고 아프지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 오는 것임을 믿고 아픔 속에서도 시험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가는 과정에서 인내라는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다. 참고로, 여기에서 인내는 영어로 ‘endurance’ 혹은 ‘perseverance’로서 ‘patience’ 보다 더욱 적극적인 믿음의 자세를 의미한다. 그렇기에 저자는 시험을 당할 때에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자세로 머물지 말고, 조개가 진주를 만들어 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이물질들에 반응하는 것과 같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한다. 그런 과정 속에서 성도들이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자들, 즉 온전히 성숙한 자들로 자라간다는 말을 덧붙이면서 말이다.

[거울 질문]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들과 인내에 관한 이러한 말씀은 당신에게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먼저, 참가자들의 생각을 들어보자. 신앙 생활을 간단히 정의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행해야 한다. 예수님은 여러 시험 (고난)을 당하셨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다. 우리도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 그리고 시험을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러할 때 인내가 만들어 진다. 이러한 점에서 인내는 믿음의 근육과도 같다. 인내가 자랄수록 혹은 믿음의 근육이 튼튼해질수록 성도들은 주님과 같이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자들로 성장해 간다. 예수님께서 시험 (고난)을 받으셨을 때 그것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온전케 되신 것과 같이 말이다 (히 5:8-9 참조). 결국, 성도들이 당하는 시험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켜주는 관문과도 같다. 이러한 믿음이 확고할 때 우리는 시험을 당해도 기뻐할 수 있을 것이다.



말씀 살기

*인도자는 아래에 나오는 두 개의 질문들을 다루기 전에 먼저 다음과 같은 식의 질문을 먼저 하라: “오늘 말씀을 공부하고 나누면서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각자가 나눈 후에는 그 말씀을 한 주간 매일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가도록 권면하자.

1. 시험(고난)을 통해 믿음이 더욱 공고하게 된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보고, 한 주간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인내하는 삶을 훈련해 봅시다.

하나님도 사탄도 우리를 죽이려 한다는 말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 자아를 죽이려 하시고, 사탄은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기 위해 우리의 신앙을 죽이려 한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거나 허락하시는 시험이 올 때에는 우리 자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 놓는 훈련을 해야 하고, 우리의 욕심에 기초하여 우리를 죄에 빠트리기 위해 마귀가 유혹해 올 때에는 우리의 욕심을 십자가 앞에 내려 놓는 훈련을 해야 한다. 이러한 훈련을 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2. 우리 가운데 시험 당하는 자가 있다면 간단히 나누어 보고, 우리 소그룹이 그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나누어 보고 한 주간 실천해 봅시다.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거나, 매일 시간을 정해 놓고 기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시험 당하는 자들을 만나 그들의 사정에 귀를 기울여 듣고, 충분히 공감해 주며,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위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나아가서, 시험 당하는 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하나님의 손과 발과 입이 되어 줄 수도 있을 것이다.